

본관 리모델링... 전남농업박물관 내일 재개관

농경문화 전시시설 1년만에 마무리 쌀 박물관·테마공원 내년 4월 완공

국내 최대 농업전문박물관인 전남 농업박물관이 새 단장을 끝내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은 1년여에 걸친 박물관 본관(농경문화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16일 다시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이 박물관은 지난 1993년 남도의 농경문화를 보여주고 청소년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영암군 삼호읍 영산호 인근에 전문농업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다.

이번 본관(농경문화관) 리모델링은 박물관이 지난 2007년부터 227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쌀 문화테마공원 조성사업의 하나이다.

박물관은 농도 이미지 제고, 쌀 농업의 중요성 및 가치 부각, 교육공간 마련 등을 위해 1·2단계로 나눠 본관 리모델링, 쌀 박물관 건립, 쌀 농업공원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관 전시실 리모델링의 경우 36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부터 낙후하고 자료가 부족한 전시공간을 새롭게 꾸렸다.

농경역사실, 농경사계실, 공동체문화실로 구성된 본관은 선사시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농경문화의 역사 변천, 다양한 농기구 등을 실물과 영상 등으로 보여준다.

조상의 생활, 사상, 지혜, 가치관 등이 녹아 있는 전시물에서 관람객들은



전남농업박물관 본관 전시실 중앙에 있는 소 박제.

과거의 생활상을 보고 체험하면서 새로운 상상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쌀박물관에는 쌀의 역사, 문화, 경제, 생태, 환경, 영양, 미래 등을 주제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3차원 입체영상실, 쌀 체험실, 쌀 카페 등이 들어서 있는 등 전시와 관람, 교육, 체험, 판매 공간이 함께 어우러진다.

52억원을 들여 한옥 형태로 내년 4월께 준공할 계획이다. 박물관 앞 영산호 간척지 14만여㎡에는 체험중심의 쌀 문화테마공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한다.

이팝(쌀) 광장을 비롯해 국왕 친경지, 벼 한살이 체험장, 생태연못, 주말농장, 토종작물원, 친환경농업관찰하

습장 등 30여개의 다양한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김우성 전남농업박물관장은 “박물관에서 우리 조상의 지혜와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소개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남도골프투어 관광객 유치 성과 출시 40여일만에 수도권 등 500여명 다녀가

전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협력단과 도내 골프장, 코레일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발해 판매 중인 '남도골프투어 상품'이 골프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 15일 출시한 남도골프투어상품에 40여일 만에 서울과 수도권 등 다른 시도 골프동호인 500여명이 도내 골프장을 찾았다.

이 상품은 도내 골프장과 여행사가 공동으로 골프·교통·숙박을 하나로 묶어 내놓은 것으로 골프투어 상품을 보다 편리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몇몇 골프장을 대상으로 상품이 나온 적은 있지만 도내 전체 골프장이 참여한 골프투어 상품은 처음이다.

전남지역 16개 골프장이 참가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며 온라인 통합판매사이트(namdogolftour.co.kr)를 참조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골프관광객은 일반 관광객보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이 크다”며 “상품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침체한 골프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여수시 '행복한 다동이 가족' 초청 행사

1000여명 참석 미술쇼·장기자랑 등 즐거운 하루

저출산 위기를 맞아 다자녀 낳기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대규모 '다동이 가족 초청 행사'가 여수에서 열려 화제를 모았다.

여수시보건소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소호동 디오션리조트에서 네 자녀 이상의 다동이 가족 1000여명이 초청된 가운데 '행복한 다동이 가족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2020. 35만 인구종합대책'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다동이 환영식을 시작으로 행운권 추첨, 미술쇼, 가족이야기, 장기자랑, 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지역 내 다양한 다동이 가족들의 숨

은 사연이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일곱 자녀로 지역 내 최대 다동이 가족인 우회봉·가나다 회로시 가정과 세쌍둥이 자녀를 둔 정영선·최혜진씨 가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다.

소라면 네자녀 가정인 여장순·김계춘씨 가족은 둘째 승민(12)군이 지난 6월 교통사고 이후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나란히 여섯 자녀를 둔 여수수방공무원 박윤기·모리개리 가족과 여수시청 공무원 추정옥·오은아 가족, 빗짜가 100일을 맞은 쌍봉동 김정연·박영숙 가족 등 특별한 다자녀

가정이 참여해 행복한 가족의 참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행사는 나들이가 쉽지 않은 다동이 가족에게 부모와 자녀가 모처럼 소중한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고, 훈훈한 가족애를 느끼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여수시보건소 김용철 소장은 “이번 행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수 만들기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다동이 가족의 우애와 서로 돕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부각시켜 시민들이 다산의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출산장려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해남 '먹는 인슐린' 여주 출하

목포지방 해양항만청 해남 송평항 등대 설치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이 해남군 화산면 송평항 방파제 끝쪽에 등대를 설치하고 불을 밝혔다.

14일 목포항만청에 따르면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8200만원을 들여 높이 8.7m, 너비 2.4m의 철탑형 등대를 설치했다.

등대 불빛은 15km 떨어진 곳에서도 식별할 수 있다. 어민들은 등대 설치로 선박 안전 운항은 물론 야간 어업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1984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송평항은 해남군이 관리하는 소규모 항이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내교리 한우프라자로 함평축협 본점 이전

함평축협(조합장 임희구)은 최근 함평을 내교리에 있는 한우프라자로 본점을 이전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그동안 한우프라자와 본점이 떨어져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하로 사업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접근성이 용이한 한우프라자로 본점을 이전함에 따라 관리비와 경비 절감 효과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프라자는 2213평의 부지에 건축면적은 863평이었으나 본점 이전에 맞춰 170평을 증축해 1034평으로 늘렸다.

/함평=황운학기자hwang@

새 얼굴

“주민 소통 민생치안에 최우선”

강철원 함평경찰서장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경찰행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강철원(54) 함평경찰서장은 “치안만족도 최우선 경찰서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민만족 치안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서장은 또한 “선배와 후배가 서로 존중하며 상호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강

조했다.

조 선 대를 졸업한 후 경찰간부 38기로 입문한 강 서장은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등 수사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쳐 2010년 총경으로 승진한 후 담양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함평=황운학기자hwang@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8월까지 무료관람 목포시 한달 연장

목포시는 삼학도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무료관람 기간을 다음달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5일 개관 기념으로 한 달간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목포해양문화축제와 여름휴가기간보다 많은 방문객이 기념관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서 무료 관람기간을 연장했다.

기념관은 개관 이후 다른 지역 단체 관광객이 줄을 이으면서 13일 현재 3만여명이 찾았다. 주말에는 하루 평균 2000명이 넘어 목포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시는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을 받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한 김

대중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기념관을 지었다.

9월부터는 어른 4000원, 초등학생 15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한다.

기념관은 삼학도 1만5600㎡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노벨평화상 기념메달, 학적부 등 483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대한인생

매주 금요일 밤 11시

MC 박미선

조형기

현미

김학래

송도순

파란만장 굴곡진 주인공들의 공감토크쇼